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이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5)

19세기의 조선은 민족적 상처와, 가난과, 남녀차별과, 비위생적인 생활습관과, 문맹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신들과 무당의 구둑이 난무한 우상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미개한 나라, 언어와 문화가 너무도 다른 나라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복음을 증거 했고, 복음만 증거한것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존경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진 땅에 유일한 소망과 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 성장세가 주춤하다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인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나니 사회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같이, 나면서부터 앓은뱅이 된 사람 같이 된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어떻게 더 많은 봉사과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사 60:4).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무수한 무리가 다 우리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무수한 무리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Rise and Shine!

(Is. 60:1-5)

Joseon in 19 century was in darkness by national injury, poverty, sexism, and unsanitary life habits. It was a nation of idol worship with superstitions, shaman's exorcism were rampant. In this land, the beginning of the Gospel's light started coming to Korea by missionaries. At that time, missionaries came to the uncivilized country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their language and culture and by undergoing all sorts of troubles, spread the Gospels. And they also founded hospitals and schools. In those days, our awareness about Christianity was respected in Korea.

Owing to God's grace, the Gospel of Jesus Christ's cross, and the strong work of spirit, Korean churches grew explosively. Especially, after the Korean War, the unique desire and light of our devastated land were churches. And now, how is our country? The starting point of 1990, the growth of Korean churches was slow. In 2,000,

at last, Korean churches have minus growth. Finally, people in the world do not think that the church is the object of love and trust any more.

The churches lost its light. After the churches' lost its light, our society has fallen into darkness.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 upon you” (Is 60)1).

God's first order is “Arise”. In the Book of John 5, Jesus said to one who was an invalid for 38 years, “Get up and pick up your mat and walk.” Like an invalid person for 38 years and like an unable man to walk from birth, the way that the Korean church rise again is that they must be indebted to Jesus Christ's word and rise up.

Moreover, God says, “shine.” And there, we do not make this light but God makes it. The worldly people can see the Christ's light through u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says that our light is good conduct. When we do good works and good conduct, the worldly people can see the light through us who believe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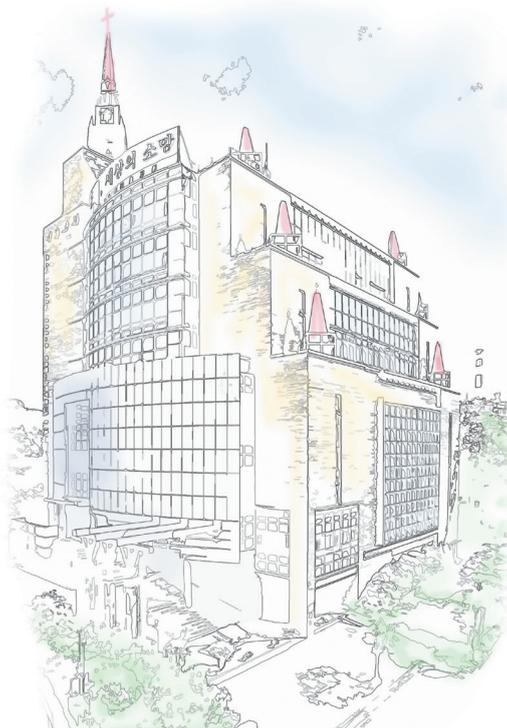
My beloved Christians,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how much we service, love, and dedicate, because Jesus said to us “Arise and shine.”

“Lift up your eyes and look about you: all assemble and come to you; your sons come from afar, and your daughters are carried on the arm” (Is 60:4).

When we obey God's order, a number of people get together because God's order has the light and the Gospels, because there is a good conduct, because it is full of joy and love, because the purpose of life, meaning, and happiness are overwhelmed with joy.

All of our family, at work, our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should arise and shine. By arising and shining, I sincerely pray that they will be used to guide people to our savior and the way of bless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년 2/4분기 추가 임명

• 예배위원회

- 1부 안내 : 차장: 최중희 (사임 김희옥) /안태길 남선영
- 2부 안내 : (사임) 고석태
- 3부 안내 : (사임) 민병환
- 찬양예배 안내 : (사임) 배경옥 최미경 한혜경 나미경 민병환
- 수요1부 안내 : 황숙현 정진영2 / 사임 합수경
- 주일3부 헌금 : 김양희2 박진주 이종돌 조연숙1 장명순 / 사임 남태순 신종연 심상필 오충례 유순섭 조영미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찬양대 : Bass 이영철
- 할렐루야찬양대 : Soprano 박대경 송명식 송평안 Alto 김성혜2 오수희 이영희1 입습기 전행욱 주의현 Tenor 박명철1 배길수 윤성남 장영재 Bass 원재선 이성배
- 임마누엘찬양대 : Soprano 남지혜 박진경 박춘자2 Alto 김선영1 박은진1 차선혜 Tenor 김영희1 홍석현
- Bass 김정훈 예완식 옥종호 홍성민1
- 베들레헴찬양대 : Tenor1 이형남 Bass2 심근섭
- 예루살렘찬양대 : 첼리스트 박성수 Alto 유지현2 Bass 서연우
- 호산나찬양대 : Soprano 전정희 Alto 정은순
- 시온찬양대 : Soprano 장미란 Alto 김유정3 백선희 Tenor 박명철1 Bass 차주호
- 은빛찬양대 : 남성 유관모 이응선 / 여성 고경자1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 김정훈1 김지안 서세준 이유빈2
- 아멘관현악단 : 김기남 문주영 박은송 오윤섭 이선민1 이혜진7

• 교육위원회

- 영아부 : 김점숙
- 유아부 : 유승애 박우옥 차영림

- 유치부 : 이해진7 나인영 김요한 하유진 한재규
 - 유년부 : 신지혜4 정아영1 박수련 백지연 최현제
 - 초등부 : (사임) 강경민 윤분남 정소연 진영재 (추가): (김승현8) 입습현 김도형 이정빈
 - 유초등연합2부 : 박찬미 최희연 윤분남 김대훈
 - 어린이찬양예배 : 정수는 이유빈2 정아영1 박건희2 최현제
 - 중등부 : 안준홍 전미경
 - 청년1부 : 손한규 천정윤
 - 디아스포라부 : 남궁규
 - 소외리 문답부 : 박미영 백승만
 - 장년1부 : 이우호
 - 새가족위원회 : 세례교육부 부감 임승한
 - 새가족등록부 : 이집순 이근대
- ### • 선교위원회
- 인도네시아 도고팀 : 이미란2 남선영 안태길
 - 식당봉사 : 손지희 전미경
 - 차량관리 : 배효복
 - 의료선교팀 : 김은선3
 - 설교도고팀 : 3부 : 김혜중 이영희7 서옥자
- ### • 교구위원회
- 1교구 : 1-8 다락방장 장항자(전 노의정) 1-22 부다락방장 조영아1(전 장은진)
 - 3교구 : 3-2 부다락방장 유희열
 - 5교구 : 5-9 부다락방장 이화용
 - 10교구 : 10-6 부다락방장 노옥자
 - 11교구 : 11-4 부다락방장 최수환
 - 13교구 : 13-12 다락방장 이명선 부다락방 이영란2 13-15 부다락방장 백현주 13-25 부다락방장 최영희3
 - 14교구 : 14-12 다락방장 김미선5 부다락방 박인자1
 - 16교구 : 16-9 부다락방장 최예순(전 이정민5)

교육위원회 풀단지 교재발간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는 2월에 풀단지 성경 읽기 1권을 제작 배부 한 후 3월에 두 번째 '풀단지 성경 읽기'를 제작, 유년부·초등부·유초등연합2부 어린이들에게 배포하였다.

성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기 바란다.



찬양대원 세미나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 101호

찬양위원회(위원장 : 임상현 장로)는 '찬양대의 본질과 사명(사 43:21)'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화), 오후 7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찬양대원 세미나를 연다.

이날 강사는 하재송 목사(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가 선다.

모든 찬양대원 및 그레이스 핸드벨, 아멘관현악단 대원 모두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강사 하재송 목사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하재송 목사 (총신대학교)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교회음악학사, 음악박사)
- (현) 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 (현) 서현교회 협동목사
- (현) HIM Chamber Choir 상임지휘자

B.M.W. 운동



Bus



Metro



Walking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크리스찬과 생활 - 크리스찬의 직업윤리 -

신약 성경에 나타난 노동의 교훈

(창 1:27-28)

1. 열심히 일하라

성경은 게으른 죄를 불경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살후 3:6에서 권면하고 살후 3:10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맡게 하라"고 가르친다. 또 살후 3:11에서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한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딤후 5:13). 이처럼 바

울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노동 윤리이고, 칼빈주의이고,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배로 늘려서 남기는 것이 기독교 노동 윤리인 것이다.

2. 부를 위해 일하지 말라

성경은 물질적 부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의구심을 갖게 하지는 않았지만 부를 축적하기 위해 범한 죄들에 대하여는 무섭게 책망하고 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는 노동은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으로 참된 의미의 노동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부를 위해 한 도적질도 노동이 될 것이다.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나 우리는 부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사나 소유물을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소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이 균등하게 주셨어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균등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양함과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3. 고용주와 고용인

인간 사회에서 참으로 풀기 힘든 문제 중의 하나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합법적인 쌍방계약이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고용인을 착취 또는 억압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기회를 남용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하면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가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그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뿐이다. 성경은 주 되신 그리스도께 성도가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듯 육신의 상전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다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의로운 왕 되심을 바르게 이해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은 자기의 직업 또는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야 한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배운 것과 같이 직업에 크고 작은 은은 있으나 귀천은 없다. 노동 또는 직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운영권, 회수권, 기득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마음, 지원하는 마음, 충성과 공의의 자세로 자기 직업에 열심을 내야 한다.

(다음주 계속)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

순례자는 지난 주일, 4월 11일(월) 박정선 교회음악의 밤을 개최하는 박정선 은퇴장로를 만나 교회음악에 관한 생각과 요즘 근황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은퇴후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대학교와 예고에 일주일에 두 세 번 나가 강의를 하고 찬송가 작곡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섯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출판사측에서 이것들을 장르별로 모아달라고 해서 그 일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찬송가작곡가협회에 공동회장으로 있어 찬송가 개발과 찬양곡집 발간 준비와 발표준비, 세미나로도 분주합니다. 7월에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대회에 참석하고, 피아노학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민요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책을 내자고 하여 거기에 작곡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정선 교회음악의 밤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정선 교회음악의 밤은 제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교회음악 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2016년 교회음악페스티벌을 준비하며 올해의 음악가로 저를 선정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를 선정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일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또 우리나라에 바른 교회음악을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에 기도 가운데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엔 서울시립합창단 지휘자인

김명엽 교수의 지휘로 서울교회 입당 예배때 올렸던 칸타타 '열렸다 하늘문이' 중에서 4곡, 제가 작곡한 찬송가 3곡과 두 개의 독창곡, 세 편의 대영광송 글로리아 등이 연주됩니다.

* 우리나라 교회음악에 대한 장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작곡가 중 크리스찬 작곡가들이 합심해서 매년 찬송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가 일곱 번째입니다. 그런데 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시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작시는 거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의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보내온 성시에도 기승전결이 확실치 않거나 간혹 경건치 못하고 세속적인 내용이 있을 때가 있어 많은 교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복음송, 소위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은 전도용이고 집회용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에 자주 몰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 뒤에 아멘을 붙이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붙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저로서는 교회음악의 세속화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혹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할지 모르나 명작은 언제까지나 명작이듯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은 시대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옛날 찬송가만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또 찬양 위원장으로 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서울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찬양,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일에 사역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촌마을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처음 피아노를 보았다는 박정선 장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계 속의 작곡가로 우뚝 섰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에 바른 교회음악을 보급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날 교회음악의 밤은 전석 초대이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정리 : 허 숙 권사(편집부)



꿀단지 성경 읽기

심진의 목사 (초등부, 유초등부 연합 지도)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는 한 달 전 꿀단지 성경 읽기 1권을 제작 배부 한 후 이번에 두 번째 「꿀단지 성경 읽기」를 제작, 유년부·초등부·유초등연합2부 어린이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책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라길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오직 서울교회에만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성경 읽기 교재입니다. 하나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수는 전도사님과 제가 집필부터 편집 디자인까지 기도하며 손수 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며 남다른 자질을 갖게 된 원천은 성경입니다. 그들은 만 세 살이 되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아이들에게 꿀을 먹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달콤하고 즐거운 이미지를 어린 시절부터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콤하



교재 개발에 힘쓴 서준권 목사(교육위원회 지도), 심진희 목사(초등부, 유초등부 연합 지도) 고수는 전도사(유년부 지도)

게 여기며 평생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교회 「꿀단지 성경 읽기」가 이와 같은 일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꿀단지 성경 읽기」교재를 어린이들이 쉽게 흥미를 느끼며 계속해서 말씀 생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사랑, 믿음, 소망에 해당하는 요한일서(1권), 로마서(2권), 히브리서(3권)을, 하반기에는 구약을 읽을 예정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첫 번째로 시작한 '요한일서 도전 19일'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로마서 도전 68일'을 두 번째로 배부했으며 6월 중에 '히브리서 도전'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인 요한일서를 나눠준 후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이 성경 읽기에 재

미를 붙였다며 감사하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꿀단지 성경 읽기」를 통해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가 매일 꿀처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우리 서울교회의 고백이 되길 간구합니다.



천국시민양성 - 살롬경로대학

배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송옥예 권사 (9교구)

기운 없기만 한 노년에 '살롬경로대학'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은 기다림과 설레임을 줍니다.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살롬경로대학'의 손뜨개반에 출석하였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교양공부가 끝나면 학과별로 각각 나누어져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출석하는 손뜨개반은 10여분의 권사님들이 3분 선생님(이상윤, 최춘숙, 권민정)의 지도와 보살핌으로 104호에 모여서 교회에서 지원해주신 털실과, 바늘등의 실습 교재로 손뜨개를 배웁니다.

저희들은 비록 나이 들어 눈도 침침하고, 손의 섬세함이 떨어졌지만 배움의 열정만은 대단합니다. 손뜨개 전문가이신 '뜨개질하는 남자' 이상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씩을 붙들고 열심히 잘 가르쳐주시고, 최춘숙 선생님과 권민정 선생님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뒷바라지를 해 주심에 언제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선생님께서 손뜨개의 순서와 방법 등을 가르쳐 주실때는 알 것 같았지만, 제가 스스로 바늘과 실을 가지고 뜨개질 코를 뜰때면 틀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선생님들께서는 일일이 다 고쳐주시면서 설명까지 해주셔서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다른 학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환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과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손뜨개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손뜨개의 배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맞이 본당 청소

봄을 맞아 스테반회와 비비 전도회는 각각 지하 주차장 물청소와 본당 청소를 하였다.

스테반회(회장 : 김광옥 집사)는 지난 4월 2일(토) 지하주차장의 대청소를 담당하였다.

비비전도회(회장 : 최정숙 집사)는 지난 4월 6일(수) 본당(2, 3, 4층) 의자를 대청소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봉사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와서 우리를 2016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 도우라

일시 | 2016. 8. 8 (월) ~ 8.15 (월)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문의 | 지도 조원영 목사 010-6611-7252
 단행 절차는 집사 010-3194-7270

2016 BANGLADESH VISION TRIP

-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1억명)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 2 2004년 1월 15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역)간절히 기도, 모든 사역의 행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드려드리고 인도하소서.
- 3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역)간절히 기도, 모든 사역의 행정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드려드리고 인도하소서.
- 4 선교교회와 교육과정의 주님의 은혜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믿음들이 하나 되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5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이경애, 조남혜, 슈브로도 버로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번 vision trip을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소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나 마케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라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일(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 개업 : 13교구 김은선 집사 영보약국 개업
- 주일식당봉사 : 에스터 전도회(4.10) 마리아 전도회(4.17)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금준 장로 이현주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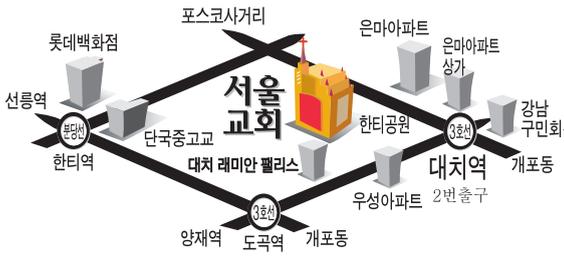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구별 체육대회를 통해 각 교구가 하나 되고 다락방 사역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2. 4월 12일(화)에 모이는 찬양대원 세미나를 통하여 모든 찬양대원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3. 5월 15일(주)에 있게 될 항존직 선거 일정이 은혜 중에 잘 준비되어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